

〈지(知)아 부(否)아?〉는 양기탁의 논설이 아니다

위서의 사회사 — 마지막회

김삼웅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동아일보》 창간호에 양기탁이 쓴 것으로 알려진 〈지(知)아 부(否)아?〉는 명논설로 인정받고 있다. 민족진영 최고의 책임자로서 항일운동을 지도한 양기탁은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자 언론계의 원로로서 유 근과 함께 고문으로 추대됐다. 언론인 유광열의 증언에 따르면, 양기탁의 이 논설은 당시 논설기자였던 이승규가 사회적 명망가였던 양기탁의 글을 대필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창간호에 양기탁이 쓴 것으로 알려진 〈지(知)아 부(否)아?〉는 다른 사람의 논설이다. 《신동아》에서 1972년에 발행한 별책부록 《한국현대명논설집》에도 실릴 만큼 이 논설은 명논설로 인정받고 있다.

‘아는가 모르는가?’로 번역되는 이 논설은 1920년 4월 1일 창간호 《동아일보》에 실렸다. 국한문으로 쓰인 이 논설은 2백자 원고지 12매 분량이다.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사 총무로 활약하는 한편 대한자강회광무사·서우학회·국문연구회 등에 참가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한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다. 특히 안창호 등과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해 총감독을 맡는 등 민족진영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서 항일운동을 지도했다.

그는 대한매일신보사가 일제에 강탈당하기 전 이른바 ‘양기탁 등 보안법위반사건’으로 구속됐다. 흔히 데라우치 총독암살사건, 105인 사건 등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일제가 한국민족주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날조한 정치조작극이었다. 양기탁은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돼 4년간 복역하다가 1915년 2월 일단 석방된 후 다시 평남 강남으로 유배됐다. 그러나 이듬해 그곳을 탈출해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 학교와 광복회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텐진에서 일경에 붙잡혀 1918년 2월 고국으로 압송돼 전남 거금도에 2년간 유배됐으며 유배지에서 3·1만세 의거를 맞았다.

1919년 12월 유배지에서 풀려나 서울로 올라와 이듬해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자 언론계의 원로로서 유 근과 함께 고문으로 추대됐다.

〈지아 부아?〉의 논설이 양기탁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은 언론인 유광열이다. 유광열은 《기자 반세기》(서문당)란 자서전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것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라고 밝히고, 반세기 동안 자신이 지켜본 국내사정을 기록했다.

유광열은 이 책에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한국언론계의 선구들〉의 항목을 살펴보자.

양기탁 논설은 이승규가 대작해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왕조 한국 말년에 배일운동의 급진 선봉으로 기독교청년회에서 불을 뿜는 듯한 배일연설로 청중을 감격케 하였었다. 한일합병후에 일어났던 105인 사건에도 그가 윤치호와 함께 가장 먼저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유 근과 양기탁 두 사람이 똑같이 신문계의 대선배이므로 편집감독으로 추대한 것이지만 유 근은 겉으로 보아서는 온후한 군자인데 비하여 양기탁은 모습부터 강직하여 보이고 기른 수염과 함께 어디로 보든지 애국지사인 혁혁한 풍모가 역연하였었다.

유 근은 때때로 그 넓은 학식을 기울여 신문지면에 우리 고전에 관한 것을 풀어써서 지면을 빛내는 일도 있었으나 양기탁은 별로 집필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동아일보》 창간호에 양기탁의 이름으로 실린 〈지(知)아 부(否)아?〉의 글은 실상 당시 논설을 쓰던 기자 이승규(李昇圭)가 대작한 것이다.

이따금 양기탁이 신문사 편집국에 두루마기도 안입고 고의 적삼에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 나타날 때이면 젊은 기자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였었다. 그는 고요히 그 날카로운 얼굴이 풀리면서 웃고 한편 팔을 들어서 답례하면서 ‘어서 앉아서 일들 하여’ 하던 것이 몹시 인상적이었다. 그는 신문에 별로 나오지 아니 하더니 그해 가을에 신문사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상이 유광열의 증언 요지이다. 필자 이승규는 《동아일보》 창간 당시 37세의 논설기자였다는 기록 외에는 달리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당시 《동아일보》 진용으로 사장 박영효와 편집감독 유 근은 59세, 양기탁은 49세, 주간 장덕수 25세, 편집국장 이상협 27세, 논설위원 겸 정치부장 진학문 26세 등이었고 논설기자 장덕준(28)과 김명식(29)이 20대

후반이었다. 이에 비해 평가자들 가운데 최영목(38), 이승규(37), 신일구(36), 교회동(34), 서승호(32), 김정진(32), 김태동(31)과 같은 30대 기자들도 있었지만, 그밖에는 김동성(30), 남상일(24), 염상섭(23), 한기약(22), 유광열(21), 이서구(21), 김형원(20) 등으로 20대 초반이 많았다(정진석, 《인물한국언론사》, 나남출판).

여기서 살펴본 대로 이승규는 37세의 비교적 나이가 많은 논설기자였고, 양기탁은 49세의 장년 편집감독이었다. 신문사 서열보다 사회적 명망가였던 양기탁의 글을 이승규가 대필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상과 지식으로 인생 개조할 것 제창해

〈지아 부아?〉의 내용을 살펴보자.

“세계에 범람한 대조류가 아조선 반도에 파급함에 아민족의 정치적 운동이 대기(大起)하야 도(到)하는 처에 정치혁신, 생활개조를 절규하야 경천동지의 형이 1개년 유여에 단하야 금일에 지(至)하였으니, 차가 곧 축수금구(縮首嚙口)에 반사기(半死氣)를 회생하고 명목 장담에 신활기를 신전하는 바이라.

차로 인하야 제반 집회와 결사와 언론과 출판 등 시설이 위연 발흥하야 함연히 고음호한(涸陰沍寒)을 경한 초목이 춘풍이 일취함에 만록이 제묘(齊苗)하는 관(觀)을 증(蒸)하니 하인이든지 차에 대하여 혼쾌의 감을 유(有)치 아니한 자 기무하리오마는 여(余)는 독(獨)히 중야(中夜) 방황에 수조의 의문을 포한 바이 유하노라.

- 一. 국민운동의 목표가 하(何)에 재(在)하는가.
- 二. 차운동의 배경에 상당한 이상과 지식이 그 후원을 작(作)하는가.
- 三. 그 목표를 도달함에 확호불발하는 결심이 유한가 함이 시(是)라면 완전히 목적지에 도달치 불능함과 여(如)히 오인도 금일 흥파거랑 중에 입(立)하여 일정한 목표가 무하고야 어찌 요원한 경로에 진행한 다 하리오.

“유 근은 때때로 그 넓은 학식을 기울여 신문지면에 우리 고전에 관한 것을 풀어써서 지면을 빛내는 일도 있었으나 양기탁은 별로 집필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동아일보》 창간호에 양기탁의 이름으로 실린 〈지(知)아 부(否)아?〉의 글은 실상 당시 논설을 쓰던 기자 이승규(李昇圭)가 대작한 것이다.”

결국은 오리무중에 방황하는 폐해가 생(生)할지니 오인은 반드시 현대에 최선량하고 최적합한 자를 택하여 일정한 목표를 작하야 문화진운에 순응함이 가할지오.

전쟁의 종식을 반하야 인류 사상계에 신국면을 전개하야 19세기 이전에 차하면 엄연히 격세의 판이 유하니 시고로 국제적 민중의 대운동이 신기(新紀)하야 사회주의니 노동주의니 하는 언론이 동서에 미만

하니 오인은 다만 부화뇌동함으로 능사를 작치 말고 반다시 신이상 신지식으로 인생의 개조를 성취할지니라.

무릇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반다시 확호불발하는 결심이 유하야 비록 천백의 지장이 래하더라도 능히 만남을 배제하고 전진하는 보조를 퇴축치 아니하야야 능히 그 목적을 도달하나니 만일 차 결심이 무하고 일시 감정에 폭발하야 수화(水火)를 불피(不避)하다가 시이사 생함에 이연히 권피하야 분호의 기력이 무하면 도연히 실패자 지위에 입하야 유시무종의 초를 면치 못하리니 어찌 오인의 맹연히 반성할 바가 아니리오.

대저 동포 연대결합의 감정은 인생지정의 산물로서 세간 하인이든지 차에 대항치 못하나니, 그러한 고로 약자의 운명이 강자의 세력권 중에 흡인이 되지 아니하고 의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문명의 전기, 사회의 혁신, 인생의 개조에 대한 약자의 력(力)이 현전 당면의 문제로 일방 강자의 세력이 쇠망의 운명에 도함과 공히 타방 약자의 지정으로부터 출한 대운동이 기하야 강자 계급에 대공황을 여하니 현시 노동자가 연대결합의 감정으로 국제적에 광대하야 호상부조하며, 연락하며, 통모함이 그 일례를 시(示)함이니라.

우리 민족도 또한 약자 계급에 제한 자로서 세계진운에 반하야 점차로 두각을 노하야 정치적 운동이 각 방면에 출현하는 바이다. 연하나 정치 운동과 사회운동은 밀접한 관계가 유한 자로서 리(離)하야 정치를 논의하는 자는 필경 허위우등에 함할 뿐이니 하등 실익이 유하리오.

근세 구라파 제국중 약자 계급에 제한 자로서 우리에게 지대한 모범을 필한 자는 벨기에 국민이니 상호부조의 도덕을 구체적으로 경제상에 실행하야 중세기 이래로 정치상 약자의 위치에 입하야 독일·서반아·포르투갈 제강국의 압박을 수함에 차에 대항하는 약자의 수단으로 지방조합을 견고히 하야 제도·풍기·전통의 자유를 주장하더니 근대에 지하야는 차 자치를 산업상에 응용하야 소비·생산의 조합과 금융의 시설과 민중의 교육상에 상호 부조하는 도덕이 주밀히 발달하야 벨기에와 각 촌리에 삼립하니 벨기에 국민의 독립심과 애국심이 실로 차 도덕의 사한 자이라. 그러하므로 벨기에인이 차 발달로 인하야 최근에는 독일의 포악에 굴치 아니하고 자유독립의 벨기에 혼을 관철함은 오인의 경앙하는 바이라.

고로 정치의 완성은 사회 각 세력의 완전한 성적을 여한 바이니, 오배도 정치운동에 신면목을 성코자 하면 먼저 사회개조의 신발달을 도할지라. 우리 약자 계급에 제한 민족이 강자를 대항하는 운동에 목표는 하야 하며 이상은 하야 하며 결심은 하야 하노.

착호라. 서가 1년 이전에 보관에 신(身)을 리하야 수수결설(囚首結舌)에 감히 일기(一氣)를 토치 못하였더니 금에 세고(世故)를 열력하야 모발이 창연한데 본사 창간의 기회를 이용하야 권권한 심회가 오히려 민멸치 아니하므로 일언을 진술하노니 독자는 그 양해할진저.” ■